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org/email-stfrancisk.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마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3,14.43-52	제2독서:	묵시 7,9.14-17	복음:	요한 10,27-30
가톨릭 성가	입당: 134	봉헌: 55	성체: 504	파견: 245	

◆ 화답송



(후렴)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 분목장의 양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수님 소리에 익숙해지기”

양과 염소를 기르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만난 적이 있다. 목장이 따로 없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양들을 풀어놓는 초원이 다 자기 목장이다. 다른 이들의 것과 섞여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양들을 찾아낼까? 혹시 자기 양들에게 표시를 하나?

한 목동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자 흩어져있던 몇몇 양들이 그 목동을 따라 나선다. 다른 목동들도 그렇게 자신의 양들을 집으로 몰고 간다. 양들이 자기 목동의 소리를 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초원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목자 안에 사는 양떼다. 우리가 진짜 양이라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아는가?

우리가 사는 초원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참으로 많다. 돈, 건강이 최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하라고... 얼마나 크고 화려하며 자주 듣는지, 때로는 그 소리가 내 주인의 소리인 듯 착각하기도 한다.

반면 가난과 온유, 사랑과 인내 그리고 나눔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소리는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 우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신다. 하루하루 그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라면서 말이다.

오늘은 일상에서 어떤 소리를 따라 나설 것인가? ♠

성모 성월 (성모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정우득
이영우, 이태모
박태경
송재숙 크리스피나
이한중
송희종 요셉
박라파엘
김광선

봉헌

가족, 성미나 야가다
이상홍 스테파노
박순 로사
송준호 바오로
이사라 사라
송명자 리디아
김지원 루시아
김지원 루시아

● 생미사

조혜나 마리안나
이은경 헬렌
이영애 레지나, 이정진 안토니오
이지연안나레지나, 이지훈아네스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이서원 마리로사

김민경 소화데레사
이규완 안토니오
가족
가족
가족
강혜숙 바울라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5월 12일	차지욱 안토니오	정희연 첼리나	이솟별 요안나 F	임유진 라자로	이진형 베드로	이경자(울) 유정옥	오윤서 황예슬	민완준 민덕미 김은희 백승훈 김영숙 박신희 홍민철 조리디아
5월 19일	이은경 헬렌	김호겸 아우구스티노	최진영 수산나	신혜정 소화데레사	이정현 헬레나	김승애 안선정	김지섭 김하나	양미숙 김승애 이지연 백이백 유정옥 유기호 이지훈 김영희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방인쇄 K&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b/t 40&41st)
212.203.0072(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연령회**가 오늘 11시에 아래성당에서 있습니다.
- **성모회**가 오늘 11시에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요셉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꾸리아**가 바자회로 인해 5월 19일에서 26일로 옮깁니다.

◆ 공 지 사 항

Mother's Day,  축하합니다.
불 발

이현우

늦은 밤 아이가 현관 자물통을 거둬 확인한다
가져갈 게 없으니 우리집엔 도둑이 오지 않는다고 말해주자
아이 눈 동그래지며, 얼마가 계시잖아요 한다
그때 그렇구나, 하는 데까지 샅초쭈 뒤 아이 얼마쯤 보니
얼굴에 붉은 꽃, 소리없이 지나가는 중이다.

➢ 5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22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19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2019년 제21회 나눔의 바자회

일정 : 5월 19일(부활 제5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Broadway Btn31/32st, Korea Town
문의 : 추진위원장 유기호 베네딕도 (914.787.0508)
후원금 접수 :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 5월 청년 미사 날짜 변경

바자회 준비 관계로, **5월 18일(토) 저녁 6시에 봉헌**됩니다.

➢ 바자회 추진 위원 회의

일시 : 오늘 11시 / 장소 : 교육관 3층 5호실

➢ 2019 봄학기 한국학교 방학식

일시 : 5월 12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다미아노 홀

➢ 5월 '공동 묵주기도 봉헌'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묵주기도와 더 친근해지길 기대하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작 : 오전 9시, 윗 성당

날짜	주관단체	묵주 기도
오늘	성모회 & 요셉회	빛의 신비
19일	꾸리아	고통의 신비
26일	성령기도회 & 양업회	영광의 신비

☆방법 : 묵주의 기도 3단까지 봉헌한 후 성모성월기도로 마칩니다. 나머지 2단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순례지 : 마드리드-톨레도-아빌라-알바 데 토르메스-
살라망카-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레온-
로올라-루르드-사라고사-몬세라트-바르셀로나

인솔사제 : 김성인 미카엘

참가경비 : \$ 2,900 예약금 \$500

➢ 양업회 본당기금 마련 물품판매

일시 및 장소 : 오늘, 다미아노 홀 입구

품목 : 다시마, 김, 미역

➢ 문화복지 NGO 이노비 후원 행사

EnoB BENEFIT Night Spring 2019

날짜 : 5/24(금) 리셉션: 6:30pm 클래식콘서트: 7:30pm

장소 : Saint Peter's Church, 619 Lexington Ave(at 54St),
New York, NY 10022

티켓 : 1장\$100/2장\$150 becon.eventbrite.com /
성당 교우분에 한해 선착순 6분 무료 티켓 제공

문의 : 이노비 김재연 사무총장 (917-822-4346) /
enobinc@gmail.com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070
감사헌금	\$ 550
합 계	\$ 2,620

❖ **교무금 :**

오동훈 김성모 김창훈 김애희 부원희 윤희구
진홍섭 최우석 박종욱 송명자 이경자(울)
이경자(벨) 이규완 경원유 정희자 노혜영
김택영 김미화 김계현 임영애 이승재 조동균

❖ **감사 헌금 :**

김승애 김미화 김은희 익명

“성경 맛들이기” - 민수기

민수기는 오경의 네 번째 권으로, 레위기에 이어지는 성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입구인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갖가지 광야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

고대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민수기의 첫 단어인 ‘와이다베르’(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이었으나, 요즘에는, 민수기 첫 구절 중 책의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다섯 번째 단어 ‘브미드바르’(광야에서)를 책의 이름으로 삼고 있다.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아리스모이’(숫자들),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에서는 ‘누메리’(숫자)라 이름 지었다. 장정과 성소 집무자, 희생제물 등의 숫자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중국어 성경 이름도 다른 나라 성경 이름을 따라 ‘民數記’라 하였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름 ‘민수기’가 유래했다.

저자

오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직접 썼다고 믿어 왔으나, 학자들은 모세 시절부터 전해진 이야기들이 수세기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되어 오경으로 묶였다고 밝히고 있다.

집필 연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체험을 하는 동안 겪은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기록되고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꼴을 갖추게 된 시기는 바빌론 유배를 전후한 기원전 6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집필 목적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광야는 물이 귀하고 황량하여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속된 광야 생활에서, 여느 약한 인간들처럼, 하느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고 하느님을 시험하고 불평한다. 반면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며 인도하시고, 또 한편으론 불평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심하게 처벌하신다. 결국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로써 민수기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느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민수기는 역사 설화와 법률이 뒤섞여 그 구조나 내용이 오경 중에서 가장 복잡한 책이다. 민수기에서는 시나이 산 체류로부터 모압 평원에 이르기까지의 사막 유랑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체험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묘사하며 그 사이사이에 전례법, 관습법, 사회법 등이 삽입되어 있다.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민수기는 땅의 점유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두에 나오는 인구조사도 땅의 점유와 연결된다. 즉 인구조사의 목적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조사한 것인데, 약속의 땅은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진지를 옮겨 행진을 시작하는데’(민수 10,11) 이것도 곧 하느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향해 떠난 것이다(10,9). 그 뒤 13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몰래 들어가 땅의 열매를 가져와 맛을 본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땅의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

숫자, 연대, 족보, 일람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제관계 사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1) 제관계 저자는 인간 창조 시, 그리고 홍수 이후 노아에게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많은 후손이 불어났음은 하느님의 축복이 빠른 속도로 결실을 맺었음을 숫자를 통해 보여주고,
- 2) 약속의 땅의 점유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 장정들의 수가 헤아려진 것은 땅의 점유에 대한 의지표명이며,
- 3)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헤아려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질서와 조직이 잘 정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외적 질서가 잡혀가는 사회에서의 이런 인원 파악은 고대부터 관례적인 것이었다.